

## 용성진종의 「總論禪病章」에 나타난 십종병 고찰

김호귀\*

### • 목 차 •

- I. 서언
- II. 무자화두 십종병의 전개
  - 1. 대혜종고의 무자화두 참구법
  - 2.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 3. 진각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
  - 4. 청허휴정의 무자화두 십종병
  - 5. 백과공선의 「무자간병론과해」
- III. 「총론선병장」의 구조와 이해
- IV. 용성 십종병의 명칭 및 그 특징
- V. 결어

---

\* 동국대 교수.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221-245.

## 한글요약

간화선에서 대표적으로 참구되고 있는 무자화두에 대하여 그 주의사항이 대체로부터 널리 제기되어 왔다. 이것이 이후에 무자화두의 십종병이라는 용어로 정립되어 온 근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대체가 무자화두를 참구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견해라고 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여덟 가지 또는 열 가지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지눌은 『간화결의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십종병이라는 용어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진각혜심은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저술하여 십종병의 낱낱 항목에 대하여 간별하였다. 이것은 태고보우를 거쳐서 청허휴정도 『선가귀감』에서 십종병을 계승하였다. 백과공선은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과해를 한 「무자간병론과해」에서 해설을 붙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지눌에게서 정형화된 십종병은 내용을 비롯하여 명칭과 순서에 약간의 변화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였다.

이와 같은 십종병의 전승에 대하여 「총론선병장」을 통하여 용성진종은 기존의 십종병에 대하여 세 가지 점에서 차별되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첫째, 간화선의 수행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십종의 병통에 대하여 그 근본을 知解에다 두고, 그 지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십종병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십종병의 열 가지 명칭에 論字를 붙여서 참구하는 남자가 분별의식과 분별사상으로 논하려는 것이 곧 병통임을 진단하였다.

셋째, 십종병 가운데 ②와 ③의 명칭에 대하여 각각 論無心病과 論平常病으로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 주제어

십종병, 총론선병장, 간화결의론, 구자무불성화간병론, 선가귀감, 무자간병론

## I. 서언

간화선의 수행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화두는 狗子無佛性話이다. 狗子無佛性話는 趙州從諗(778~897)으로부터 연원되었고, 이후 북송의 五祖法演(1024~1104) 이후에 화두로서 정착되었다.<sup>1)</sup> 오조는 평소에 無字를 화두로 삼았는데, 이 無字를 터득한다면 천하의 사람들도 어찌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그 無字를 터득하는 방식으로 無字話頭에 대하여 ‘有’라고 답변하는 것도, 그리고 ‘無’라고 답변하는 것도, 그리고 양자를 모두 부정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곧 분별의 有와 無를 초월한 입장에서 無字話頭를 참구시켰던 것이다.<sup>2)</sup>

간화선 수행 가운데 무자화두의 수행은 무자를 의심하여 잠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無間斷의 수행으로 화두에 대한 의심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망각할 경우에 병통이 발생한다. 그런 병통의 처음은 대체로부터 구체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비롯되었는데, 화두를 참구하는 병폐를 지적함으로써 화두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화두가 그릇된 모든 지각을 없애는 수단으로서 의심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특정한 맛으로 느껴질 때 병통이 되는 것이다.<sup>3)</sup> 이와 관련하여 무자화두가 大慧宗杲(1089~1163)에 이르러 더욱더 중요하게 취급됨으로써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방식에서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무자화두의 참구에서 범하기 쉬운 십종병에 대하여 한국의 선종사에 보이는 전승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龍城震鍾

1) 柳田聖山 著, 안영길·추만호 역, 『선의 사상과 역사』 민족사, 1989, p.261.

2) 『法演禪師語錄』 卷3(大正新脩大藏經47, 665中-下), “上堂學。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僧云。一切衆生皆有佛性。狗子爲什麼却無。州云。爲伊有業識在。師云。大衆爾諸人。尋常作麼生會。老僧尋常只舉無字便休。爾若透得這一箇字。天下人不柰爾何。爾諸人作麼生透。還有透得徹底麼。有則出來道看。我也不要爾道有。也不要爾道無。也不要爾道有不無。爾作麼生道。”

3) 김영옥, 「看話十種病的 淵源」, 『범한철학』 42-3, 2006, p.11, p.14.

이 이와 같은 십중병의 전승을 수용하여 「총론선병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글을 통하여 무자화두 참구에서 발생하는 열 가지 잘못된 참구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용성 나름대로 제시한 십중병의 구조와 명칭과 특징이 기존의 경우와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가에 등에 대하여 고찰해봄으로써 백용성의 선 수행론에 대한 일단의 입장을 엿보고자 한다.

## II. 무자화두 십중병의 전개

### 1. 대혜종고의 무자화두 참구법

대혜는 『서장』에서 答富樞密<sup>4)</sup> · 答陳少卿<sup>5)</sup> · 答呂郎中<sup>6)</sup> · 答呂舍人<sup>7)</sup> · 答張舍人<sup>8)</sup> 등을 통해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언급하였다. 대혜가 거론한 항목들은 두 가지로부터 최대 여덟

- 
- 4) 『大慧普覺禪師語錄』 卷26(大正新脩大藏經47, 921下), “不得作有無會。不得作道理會。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不得向揚眉瞬目處探根。不得向語路上作活計。不得颺在無事甲裏。不得向舉起處承當。不得向文字中引證。”
  - 5) 『大慧普覺禪師語錄』 卷26(大正新脩大藏經47, 923中-下), “不得執生死佛道是有。不得撥生死佛道歸無。但只看狗子還有佛性也無。趙州云無。切不可向意根下卜度。不可向言語上作活計。又不得向開口處承當。又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狗子還有佛性也無。無。但只如此參。亦不得將心待悟待休歇。若將心待悟待休歇。則轉沒交涉矣。”
  - 6) 『大慧普覺禪師語錄』 卷28(大正新脩大藏經47, 930下), “又不得向舉起處承當。又不得思量卜度。”
  - 7) 『大慧普覺禪師語錄』 卷28(大正新脩大藏經47, 931下), “第一不得向舉起處承當。又不得颺在無事甲裏。不可舉時便有。不舉時便無也。但將思量世間塵勞底心回在乾屎橛上。思量來思量去。無處奈何。伎倆忽然盡。便自悟也。不得將心等悟。若將心等悟。永劫不能得悟也。”
  - 8) 『大慧普覺禪師語錄』 卷30(大正新脩大藏經47, 941中), “只管提撕舉覺。左來也不是。右來也不是。又不得將心等悟。又不得向舉起處承當。又不得作玄妙領略。又不得作有無商量。又不得作眞無之無卜度。又不得坐在無事甲裏。又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가지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서 不得向舉起處承當의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보인다. 이것은 대혜의 『서장』에서는 아직 십종병으로 체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이후 고려의 知訥(1158-1210)은 『看話決疑論』에서 答富樞密의 여덟 가지 항목에다 答張舍人의 편지 가운데서 不得作眞無之無卜度を 첨가하고, 또한 答富樞密 편지의 다른 대목<sup>10)</sup>에서 不得將迷待悟의 두 항목을 추가하여 십종선병으로 제시하였다.<sup>11)</sup>

## 2.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이와 같은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한 주의사항이 간화선 수행의 도입과 함께 선병의 개념으로서 고려에 전승되면서 지눌의 경우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sup>12)</sup> 지눌은 『간화결의론』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열 가지 사항에 대하여 ① 不得作有無會, ② 不得眞無之無, ③ 不得作道理會, ④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⑤ 不得向揚眉瞬目處

9) 최성렬, 「無字話頭와 普照知訥의 看話十種禪病」, 『석산한중만박사화갑기념 한국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국, 1991, pp.322-323.

10) 『大慧普覺禪師語錄』 卷26(大正新脩大藏經47, 921上), “顛倒有三。自言爲知解所障是一。自言未悟甘作迷人是一。更在迷中將心待悟是一。”

11) 지눌은 『看話決疑論』, 『普照全書』, 보조사상연구원, 1989, pp.91-102에서 이들에 대한 용어를 禪門十種病·十種病·十種禪病·佛法知解之病·知解之病·十種知解之病 등으로 명명하고 있어서 열 가지로 확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1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普照全書』, 보조사상연구원, 1989, p.163, “牧牛子曰此法語。但彰八種病。若檢前後所說。有眞無之無。將迷待悟等二種。故合成十種病也。” 대혜의 무자화두에 대한 병통이 중국에서는 원나라 몽산덕이의 [무자십절목]으로 변용적인 계승이 이루어졌다. 이들 차이점에 대하여 인경은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대혜의 십종병은 오직 잘못된 견해를 비판하는 破邪만 있지만, 몽산의 십절목에는 파사와 더불어 顯正이 함께 한다. 둘째, 대혜의 십종병이 오직 비판 대상이 사대부를 향한 내용이었다면, 몽산의 경우는 일단 무자화두가 차지하는 대표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당시 실답게 참구하지 않고 무자화두가 가지는 성격이나 자체의 의미를 논의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대혜의 십종병이 병렬적인 열거라고 한다면, 몽산의 십절목은 공부 길에서 만나는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말한다. 인경,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사상 연구』, 명상상담연구원, 2009, pp.244-260.

探根, ⑥ 不得向語路上作活計, ⑦ 不得颺在無事甲裏, ⑧ 不得向舉起處承當, ⑨ 不得向文字中引證, ⑩ 不得將迷待悟<sup>13)</sup>로 정리하고 있다.<sup>14)</sup>

### 3. 진각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

이것을 더욱더 세련되게 체계화 시킨 인물은 眞覺慧謙(1178~1234)이다. 혜심이 「狗子無佛性話揀病論」에서 제시한 십종병의 순서와 항목은 ① 不得作有無之無, ② 不得作眞無之無卜度, ③ 不得作道理會, ④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⑤ 不得揚眉瞬目處探根, ⑥ 不得向語路上作活計, ⑦ 不得颺在無事甲裏, ⑧ 不得向舉起處承當, ⑨ 不得向文字引證, ⑩ 不得將迷待悟 등이다.<sup>15)</sup> 혜심은 이들 열 가지 항목을 체계화한 이후에, 이것을 다시 難離·易離의 二治, 不可以有心求·不可以無心得·不可以語言造 不可以寂默通的 四病으로 간략하게 분류하고, 思義·不思議의 不出 등으로 간략하게 분류한다. 이 가운데 ⑤부터 ⑩까지는 難離治病이고, ①부터 ④까지는 易離治病으로 분류한다.<sup>16)</sup>

이하 太古普愚(1301~1382)는 無能居士에게 주는 글에서 한 승과 조주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들어서 무자화두의 참구태도를 언급하여 “그 無字는 유무의 무도 아니고, 또한 진무의 무도 아닙니다. … 결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sup>17)</sup>하고 분별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13) 『看話決疑論』, 『普照全書』, 보조사상연구원, 1989, p.163, “不得作有無會。不得作道理會。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不得向揚眉瞬目處探根。不得向語路上作活計。不得颺在無事甲裏。不得向舉起處承當。不得向文字中引證。但向十二時中四威儀內。時時提撕。時時舉覺。狗子還有佛性也無。云無。不離日用。試如此做工夫。牧牛子曰此法語。但彰八種病。若檢前後所說。有眞無之無。將迷待悟等二種。故合成十種病也。”

14) 이런 점에서 최성렬은 지눌의 『간화결의론』에서 비로소 간화선 수행의 십종선병이 체계화되었다고 말한다. 최성렬, 「看話十種禪病的 체계 분석」, 『불교학보』 2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1, pp.219-220.

15) 「狗子無佛性話揀病論」(韓國佛教全書6, 69-70)

16) 「狗子無佛性話揀病論」(韓國佛教全書6, 70中)

17) 『太古和尚語錄』 卷上(韓國佛教全書6, 680上), “不是有無之無。亦不是眞無之無。…

#### 4. 청허휴정의 무자화두 십종병

이와 같이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한 십종의 간병론에 대하여 조선 중기 淸虛休靜(1520~1604)은 『선가귀감』에서 ① 意根下卜度, ② 揚眉瞬目處塚根, ③ 語路上作活計, ④ 文字中引證, ⑤ 舉起處承當, ⑥ 颺在無事甲裏, ⑦ 作有無會, ⑧ 作眞無會, ⑨ 作道理會, ⑩ 將迷待悟<sup>18)</sup>라고 언급한다. 혜심이 제시한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의 경우와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하다. 곧 청허의 십종병도 지눌로부터 유래된 항목이 혜심을 거쳐서 이후로 상승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 5. 백과공선의 「무자간병론과해」

한편 조선 후기의 白坡巨璇(1767~1852)은 혜심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에 科解를 붙인 「無字揀病論科解」를 통해서 백과 나름대로 무자화두의 참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그 십종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였다. 백과가 언급한 순서와 용어는 ① 揀有無之無解, ② 揀眞無之無解, ③ 揀玄妙道理解, ④ 揀思量卜度解, ⑤ 揀揚眉瞬目解, ⑥ 揀語路活計解, ⑦ 揀無事甲裡解, ⑧ 揀舉起承當解, ⑨ 揀文字引證解, ⑩ 揀將迷待悟解 등이다.<sup>19)</sup> 이것은 또한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대한 「과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순서에 있어서 혜심의 경우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백과는 四病에 대한 혜심의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揀하여 말한다.

열 가지 가운데 ①과 ④와 ⑩은 ㉠유심에 해당하고, ②와 ③은 ㉡무심에 해당하며, ⑥은 ㉢어언에 해당하고, ⑤와 ⑦은 ㉣적목에 해당하며, ⑧은 ㉤

切忌如何若何。”

18) 『禪家龜鑑』(韓國佛教全書7, 637上)

19) 「無字揀病論科解」(韓國佛教全書10, 524中-527上)

유심 · ㉔무심 · ㉕어언 · ㉖적묵의 네 가지에 두루 통한다. 화두를 드는 것은 유심과 어언에 해당하고, 화두를 들지 않는 것은 무심과 적묵에 해당하며, ㉗는 또한 화두를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에 두루 통한다. 고인은 이 네 가지 병통을 타파하려는 까닭에 지금까지 위에서처럼 간별해 왔다.<sup>20)</sup>

그리고 백과는 二病에 대한 혜심의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揀하여 말한다.

간략하게 그것(유심 · 무심 · 어언 · 적묵)을 말하면 思議와 不思議를 벗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으며, 이렇게도 저렇게도 모두 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21)</sup>

이들 대혜와 지눌과 혜심과 청허와 백과가 말한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여준 각각의 방법은 분명하다. 곧 대혜종고는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의 주의사항으로서 한꺼번에 열 가지를 제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소 두 가지로부터 최대 여덟 가지에 이르는 사항을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으로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다.

대혜는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당시에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고 그것을 퇴치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것이다. 보조지눌은 『간화결의론』에서 대혜로부터 전승된 무자화두의 참구법을 열 가지로 규정하였다. 다만 대혜가 제시한 경우와 용어와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진각혜심은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저술하여 본격적으로 무자화두에 대

20) 「無字揀病論科解」(韓國佛教全書10, 526下), “十中。一四十爲有心。二三爲無心。六爲語言。五七爲寂默。八通於四病。欲舉爲有心語言。未舉爲無心寂默。九亦爲通。古人破四病故。同上揀意。”

21) 「無字揀病論科解」(韓國佛教全書10, 526下), “畧而言之。則不出思議不思議。所以道。左來也不是。右來也不是。又道伊麼也不得。不伊麼也不得。伊麼不伊麼揚不得。”

한 잘못된 참구법을 지적하고 그것을 체계화 하였다.

청허휴정은 『선가귀감』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주의사항으로서 기존에 전승되어 오던 사항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한 십종병을 더한층 공고히 하였다. 백과공선은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대한 해설서의 성격을 지닌 「무자화두간병론」을 저술하여 열 가지 낱말의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붙이고 전체적인 科解를 명료하게 하였다.

### III. 용성 「총론선병장」의 구조와 이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내지 잘못된 방식에 대하여 백용성은 「총론선병장」<sup>22)</sup>이라는 글을 통하여 무자화두의 십종병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선병총론장」은 그다지 길지 않은 글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한 십종병에 대하여 그 근원적인 이유와 십종병에 대하여 낱말의 항목을 용성 나름대로 설정하여 해설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십종병에 대한 용성의 견해가 기존의 제존숙의 견해와 동이점이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총론선병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첫째는 간화에서 선병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용성은 수많은 선병은 근원적으로 知解로부터 유래한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용성은 다시 지해로부터 기존의 고덕이 말한 義路病·理路病·聞解病·思想病의 四病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四病으로부터 思議病과 不思議病의 二病이 발생한다. 二病으로부터 四路의 葛藤 곧 有心求·無心得·語言造·寂默通의 병통이 발생한다. 四路의 갈등으로부터 ① 有無

22) 「總論禪病章」, 『백용성대종사총서』 1, 대한불교조계종총대학회, 동국대출판부, 2016, pp.121-128.

會, ② 眞無會, ③ 道理會, ④ 意根下卜度, ⑤ 揚眉瞬目處塚根, ⑥ 語路上作活計, ⑦ 颺在無事甲裏, ⑧ 舉起處承當, ⑨ 文字中引證, ⑩ 將迷待悟 등 十種禪病이 발생한다.<sup>23)</sup>

(2) 둘째는 수많은 화두 가운데 특별히 무자화두를 들어서 십종병을 내세우는 까닭에 대하여 묻는다. 이에 대하여 용성은 하나만 들어도 전체가 거기에 收用된다고 답변한다.<sup>24)</sup>

(3) 셋째는 십종선병의 이치와 연유에 대하여 묻는다. 이에 대하여 용성은 12절목의 형식을 들어서 1절은 敎內와 敎外의 차이를 설명하고, 2절은 총론적인 설명을 하며, 3절부터 이하 열 가지 항목의 십종병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sup>25)</sup>

곧 1절은 십종선병이 敎內 곧 교학의 입장에서는 모두 부사의한 법계와 장애가 없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별심과 관련되어 십종선병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敎外 곧 선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체적으로 하나의 大病일 뿐이라고 말한다.

2절에서는 총론적으로 부사의한 법계와 장애가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어 의미를 논의하는 死句에 빠지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병통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하 3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항목의 설명이 바로 십종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3) 셋째의 문답에 속한다. 이하에서 본격적인 십종의 논을 들어서 그것이 병통임을 설명한다.

#### ① 有無로 논하려는 병(論有無之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조주가 말한

23) 용성은 여기에서 四病·二病·四路의 葛藤·十種禪病에 대한 설명은 진각혜심과 백과공선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 십종선병에 대한 낱낱의 설명에서는 용성의 독창적인 용어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24) 『백용성대종사총서』 1, pp.122-123.

25) 『백용성대종사총서』 1, pp.123-128.

有의 경우에는 一靈眞性이 법계에 周遍하여 獨露當當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이고, 조주가 말한 無의 경우에는 제법의 자성이 공이므로 어떤 법도 본유가 아니므로 佛·性·心에 대하여 논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이다.’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혜심이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말한 ‘不得作有無之無’라는 지적을 인용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용성은 혜심의 견해를 수용하지만 유무를 논하는 병통으로서 그 해설은 크게 다르다.

② 無心으로 논하려는 병(論無心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주체 곧 마음과 객체 곧 경계가 본래 공이므로 염착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상량하는 경우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이 무심병에 대하여 무자화두를 무심의 도리로 인식하여 지해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③ 平常으로 논하려는 병(論平常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이듯이 狗子도 그저 狗子일 뿐이다.’는 뜻으로 상량하는 경우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무자화두를 상식[平常]의 도리로 인식하여 지해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④ 道里로 논하려는 병(論道里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유무로 이해하는 것과 진무로 이해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묘한 경지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으로 상량하는 경우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이 도리병에 대하여 혜심이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말한 ‘不得作道理會’라는 지적을 인용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용성은 혜심의 견해를 수용하지만, 도리병을 논하는 병통에 대하여 무자화두

야말로 미묘하여 사랑분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설한다.

⑤ 意根下卜度으로 논하려는 병(論意根下卜度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유무로 이해하는 것과 진무로 이해하는 것과 미묘한 도리로 이해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상량하는 경우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의근하복탁병에 대하여 움직임을 그치고 조용히 앉아서 참구한다지만 그것은 千思萬慮가 어지럽게 작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한다.

⑥ 揚眉瞬目으로 논하려는 병(論揚眉瞬目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일체의 도리와 복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은밀한 작용 및 그에 상응하는 구절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揚眉瞬目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삼는다.’는 뜻으로 상량하는 경우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혜심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의한다.

⑦ 無事甲裏로 논하려는 병(論無事甲裏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無爲·無事の 천진한 본래면목의 날날이 도장을 받아 모든 사람의 면전에 제시된 것인데 어찌 참구할 가치가 있느냐.’는 뜻으로 상량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혜심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용성은 無事甲裏의 의미에 대하여 ‘푸른 솔 깊은 물 한가롭게 자재하고 어촌과 주막에 마음대로 소요하면서 무위를 누리는 모습’이라고 하여 대자유인의 해탈경계의 의미로 노래하고 있다.

⑧ 舉起處承當으로 논하려는 병(論舉起處承當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이미 무위 및 무사로 이해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선상을 치고 불자를 치켜들며 고인이 거양한 기관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소식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상량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혜심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의한다.

⑨ 引證으로 논하려는 병(論引證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갓가지로 고인의 문자 가운데서 인용하여 그 증거로 삼는다.’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혜심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의한다.

⑩ 將迷待悟로 논하려는 병(論將迷待悟病)

이에 대하여 용성은 조주가 ‘無’라고 말한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는 당사자가 ‘나는 미혹하여 부처와 조사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현묘한 관문을 모른다.’는 뜻으로 상량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혜심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용성은 將迷待悟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스스로 미혹하여 부처와 조사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현묘한 관문을 모른다. 그러므로 차라리 깨달음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것처럼 다급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앞세우는 것은 장애가 된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저 깨달음이 도래하기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그것이 병통임을 지적한다.

이처럼 십종의 병통에 대하여 낱낱의 설명을 붙이고 이후에 종합적으로 고덕의 말을 인용하여 결론을 짓는다.

고덕은 말한다. 무릇 경전의 가르침 및 고덕이 깨달음을 터득한 인연을 보면서도 아직 마음을 분명하게 요해하지 못한 탓에 막막하고 답답하며 자

미가 없는 것이 마치 쇠말뚝을 씹어 먹는 것과 같음을 느낄 때야말로 바로 힘을 기울여야 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결코 화두를 놓아서는 안된다. 이에 意識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思想이 도달하지 못하여 分別이 단절되고 義路가 소멸되는 경지에서 갑자기 (화두가) 촉발되면 마치 잊고 있었던 것이 홀연히 기억나는 것과 같고, 마치 자다가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sup>26)</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용성은 십종병의 결론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자세에 대하여 대혜종고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문의 내용은 약간 변형되어 있지만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한 마음자세의 핵심에 대하여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찍이 청허의 『선가귀감』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sup>27)</sup>

지금까지 『총론선병장』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용성이 제시한 십종병의 구조는 대혜로부터 비롯된 무자화두의 참구에서 드러나는 십종병에 대하여 지눌의 열 가지 병통의 정립을 거쳐 혜심의 십종병에 대한 揀, 그리고 청허와 백파의 십종병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6) 『백용성대중사총서』 1, p.128, “古云凡看經教及古德入道因緣호대 心未明了하야 覺得迷悶沒滋味가 如咬鐵橛相似時에 正好着力이니 第一에 不得放捨話頭어다 乃是意識이 不行하며 思想이 不到하야 絶分別滅義路處에 驀然觸發하면 如忘忽記하며 如睡夢覺이니라.” 이 대목은 대혜 및 지눌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에 약간의 출입이 보인다. 『大慧普覺禪師語錄』 卷19(大正新脩大藏經47, 891上), “凡看經教及古德入道因緣. 心未明了. 覺得迷悶沒滋味. 如咬鐵橛相似. 時正好着力. 第一不得放捨. 乃是意識不行. 思想不到. 絶分別滅理路處. 尋常可以說得道理. 分別得行處. 盡是情識邊事. 往往多認賊爲子. 不可不知也.” ;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보조전서』, 보조사상연구원, 1989, p.161, “凡看經教及古德入道因緣. 心未明了. 覺得迷悶沒滋味. 如咬鐵橛相似時. 正好着力. 第一不得放捨. 乃是意識不行. 思想不到. 絶分別滅理路處. 尋常可以說得道理. 分別得行處. 盡是情識邊事. 往往多認賊爲子. 不可不知.” 참조.

27) 休靜 述, 『禪家龜鑑』(韓國佛敎全書7, 657上-中) 참조.

#### IV. 용성 십종병의 명칭 및 그 특징

용성이 「총론선병장」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드러나는 열 가지 병통은 기존부터 전승되어 온 십종병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부터 백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온 무자화두참구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용성은 그와 같은 십종병에 대한 전승을 해설함에 있어서 열 가지 항목과 각각의 항목에 따른 이유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십종병의 용어에 대한 선별적인 특징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첫째로 십종병의 명칭 및 나열된 순서에 대해서 기존에 전승되어 온 견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no.	대혜종고	보조지눌	진각혜심	청허휴정	백파공선	용성진종
①	不得作有無會	不得作有無會	不得作有無之無	意根下卜度	揀有無之無解	論有無之病
②	不得作道理會	不得真無之無	不得作真無之無卜度	揚眉瞬目處塚根	揀真無之無解	論無心病
③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不得作道理會	不得作道理會	語路上作活計	揀玄妙道理解	論平常病
④	不得向揚眉瞬目處塚根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文字中引證	揀思量卜度解	論道理病
⑤	不得向語路上作活計	不得向揚眉瞬目處塚根	不得揚眉瞬目處塚根	舉起處承當	揀揚眉瞬目解	論意根下卜度病
⑥	不得廳在無事甲裏	不得向語路上作活計	不得向語路上作活計	廳在無事匣裏	揀語路活計解	論揚眉瞬目病
⑦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廳在無事甲裏	不得廳在無事甲裏	作有無會	揀無事甲裡解	論無事匣裏病 <sup>28)</sup>
⑧	不得向文字中引證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向舉起處承當	作真無會	揀舉起承當解	論舉起處承當病
⑨	不得作真無之無卜度	不得向文字中引證	不得向文字中引證	作道理會	揀文字引證解	論引證病
⑩	不得將迷待悟 <sup>29)</sup>	不得將迷待悟	不得將迷待悟	將迷待悟	揀將迷待悟解	論將迷待悟病

28) ⑦의 경우에 청허휴정 및 용성진종의 경우는 無事甲裏의 甲이 匣으로 되어 있다.

여기 나열된 열 가지 명칭 가운데서 용성의 경우에 기존의 용어와 다른 점은 ②의 경우 기존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보이지 않은 無心の 의미가 무자화두의 無를 논하는 병통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③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平常의 의미가 무자화두의 無를 논하는 병통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에 대하여 용성은 무자화두의 ‘無’에 대하여 남자가 마음과 경계가 본디 공으로서 염착됨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람을 보고 공연히 웃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감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처럼 무심의 이치로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②는 기존의 경우에 모두 ‘無’를 眞無의 의미로 파악하려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친척된 경우이다. ‘無’를 진무의 무리는 의미로 파악하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손쉬운 접근법이다. 그러나 ‘無’를 無心の 의미로 파악하려는 것은 무자화두를 참구하고 있으면서도 무자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무자화두를 참구하고 있다는 분별행위에도 집착하지 않으려는 것쯤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용성은 이런 경우야말로 무자화두 그 자체에조차 집착이 없어야 비로소 무자화두 자체를 가장 잘 참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남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은 용성이 제시한 십종병의 명칭 가운데 가장 특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③에 대하여 용성은 무자화두의 ‘無’에 대하여 남자가 산은 단지 산일 뿐이고 물은 단지 물일 뿐인 것처럼 狗子는 그저 狗子일 뿐이라고 평상의 지해를 동원하여 인식해서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③은 무자화두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음으로써 무자화두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초연함은 물론이고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수행이라는 행위로 파악함으로써 무자화두가 어디서나 언제라도 누구에게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

---

29) 지눌은 마지막 두 항목을 [答張舍人] 및 [答富樞密]의 다른 편지에서 각각 취하여 십종병으로 파악하였다.

려는 것쯤으로 파악하려는 납자의 안이한 참구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③의 경우를 통해서 용성은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하여 결코 손쉽게 덤빈다든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든가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처럼 만만한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음 둘째로 용성이 제시한 십종병 명칭의 특징은 각 명칭 앞에 論字를 붙임으로써 무자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공통적인 잘못으로서 일체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임을 지적하고 있다. 대혜종고·보조지눌·진각혜심의 경우에는 가령 不得作有無會처럼 십종병 항목의 맨 앞에 모두 不得이 붙어 있다.<sup>30)</sup>

이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납자를 주체적인 입장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선지식이 무자화두의 無에 대하여 有 내지 無의 의미로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들 경우는 십종병의 명칭이 어디까지나 참구하는 납자에 대하여 有無會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청허휴정은 기존의 십종병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십종병 항목의 맨 앞에 모두 不得을 붙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백파공선의 경우는 가령 揀有無之無解처럼 無字話頭の 無에 대하여 有無의 無라는 의미로 이해하려는 것을 간별한다는 점에서 有無之無解다 揀字를 붙여서 정형적인 용어로 활용하였다. 이 경우에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가 有無之無로 이해[解]하려는 것을 간별해준다[揀]는 것은 납자의 잘못에 대하여 선지식이 그와 같은 병통으로부터 구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揀有無之無解에서 전체적인 주체는 화두를 참구하는 납자가 아니라 그들을 지도해주는 입장에 있는 선지식

30) 특별히 진각혜심의 경우에는 「狗子無佛性話揀病論」이라는 제명에 보이듯이 不得作有無會임을 분별한다는 의미에서 ①의 경우 大惠揀云이라 하였고, ②와 ③과 ⑨의 경우처럼 揀云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모두에 대하여 용어 앞에 揀云이라는 말을 붙였다. 이 경우 揀云은 십종병의 명칭을 간별한다는 의미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자면 십종병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십종병의 용어에 붙은 서술어에 해당한다.

이 된다.

그러나 용성진중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심중병의 모든 명칭의 맨 앞에 論字를 붙여두고 있는데, 이때 용성은 論의 주체에 대하여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라고 간주한 것이다. 가령 論有無之病에서 납자가 무자화두의 無에 대하여 有無의 無를 가지고 論하려는 것은 다름아닌 병통 [病]이라고 선지식이 진단한다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따라서 용성은 「총론선병장」의 결론적인 대목에서 대혜종고의 말을 인용하여 심중병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권장한다. 곧 무자화두의 참구에 대하여 분별의식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분별사상으로도 도달할 수 없어서 分別이 단절되고 義路가 소멸된 곳을 향해서 곧장 촉발할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분별의 입장에서 무자화두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무자화두에 접근하려는 일체의 행위가 병통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낱말에 대하여 용성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곧 ①은 유와 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②는 무심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③은 평상의 이치를 이끌어내어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④는 절묘한 불법의 도리에 적용시켜서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⑤는 인간의 분별의식으로 이리저리 재고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⑥은 어떤 이치나 예측이나 사랑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가 없

31) 일례로 論有無之病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有無의 病에 대하여 論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의 병통에 대하여 그들을 지도하는 선지식이 論한다는 의미가 되어 論의 주체가 선지식이 된다. 그러나 ‘有無로 論하려는 병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가 論한다는 의미가 되어 論의 주체가 납자가 된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경우로 논의한다. 왜냐하면 「總論禪病章」에서 용성은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납자가 열 가지 항목에 걸쳐서 각각 (….)라고 論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병통임을 진단한다는 의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서 부득이하게 눈썹을 치켜뜬다든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으로 자신의 감량을 드러내어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⑦은 본래부터 천진한 면목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까닭에 굳이 이러쿵저러쿵 노심초사하는 것은 끊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라고 하여 아무런 작위도 없다는 것으로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⑧은 무자화두 그 자체에 처음부터 대단한 그 어떤 공능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선상을 치거나 불자를 휘두르는 것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⑨는 경전이나 어록 가운데 즐겨 인용되고 있는 일화를 끄집어내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그것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⑩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까닭에 불보살과 조사가 터득한 현묘한 경지는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도래해야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여 마냥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무자화두를 타파하려는 병통이다.

용성은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경우에 잘못된 방식을 이처럼 비록 열 가지 병통으로 나누어 보다 친절하게 그것으로부터 남자를 구제해주려는 가르침으로 십종병을 제시하였다. 비록 그럴지라도 그러한 선병이 발생하는 근원에 대하여 다시 용성은 知之一字是衆禍之門으로서 온갖 道를 장애하는 문이 이로부터 발생했다고 말한다.<sup>32)</sup> 진각혜심이 揀하여 말한 것처럼 용성은 바로 그 知解로부터 義路病·理路病·聞解病·思想病의 四病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십종병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지혜에 다 두고 파악하고 있는 점은 일찍이 지눌도 언급하고 있는 바였다.<sup>33)</sup>

그렇지만 용성은 십종선병의 이치와 그 연유에 대해서도 답변하고 있

32) 『백용성대종사총서』 1, p.121.

33) 지눌은 『간화결의론』에서 십종병에 대하여 몇 가지 용어 가운데 十種知解之病이라는 용어를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용성은 덧붙여서 그 四病으로부터 思義와 不思議의 二病이 발생하고, 나아가서 二病으로부터 四路葛藤 곧 有心求·無心得·語言造·寂默通의 병통이 발생하며, 그 四路葛藤으로부터 십종의 선병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다. 곧 십중선병이 교학[教內]에서는 부사의하고 장애가 없는 법계이며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어서 死句의 병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다시 부사의한 법계이고 장애가 없는 그 지혜가 선종[教外]에서는 一種의 大病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부득불 것처럼 상세하게 열 가지 병통을 진단하여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남자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한편 용성은 수많은 화두 가운데서 무슨 까닭에 특별히 무자화두를 들어서 십중선병을 標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무자화두 하나만 들면 모든 화두가 거기에 收容된다[舉一全收]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간명직절하게 답변한다.<sup>34)</sup>

이처럼 용성은 무자화두에 대한 십중병에 대하여 전통적인 견해에 근거하면서도 ②와 ③의 항목에서 볼 수가 있듯이, 용성 나름대로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설명을 가함으로써 無心과 平常의 차원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려는 병통을 극복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다. 용성은 「총론선병장」에서 결론적인 설명으로서 [結勸]<sup>35)</sup>의 대목에서 언급하고 있다. 곧 의식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상도 도달하지 못하여 분별이 단절되고 의로가 소멸되는 경지에서 갑자기 촉발하는 경험이란 바로 십중병을 물리치고 진척이 있었을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파악하여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데에 나아가서 百尺竿頭에서 進一步 하는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34) 『백용성대종사총서』 1, pp.122-123.

35) 『백용성대종사총서』 1, p.128.

## V. 결어

간화선에서 널리 참구되고 있는 무자화두에 대하여 일찍이 대혜는 무자화두의 참구에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여덟 가지 또는 열 가지로 나열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혜의 경우에는 아직 그것을 정형적인 십종병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무자화두의 참구에서 주의할 사항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혜의 간화선 수행법을 수용한 보조지눌은 『간화결의론』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함에 있어 잘못을 범하는 열 가지 사항을 십종병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였다. 이후에 진각혜심은 십종병의 각각 항목에 대하여 그것이 왜 잘못된 참구방식인가를 간별하여 지도해주는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저술하였다. 이미 지눌에게서 정형화된 십종병의 내용은 명칭 내지 순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였다. 그리고 청허휴정은 『선가귀감』에서 용어를 보다 단순화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백파공선은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대하여 분과를 치고 설명한 「무자간병론과해」를 저술하여 보다 십종병을 보다 구체적으로 간별해주었다.

이와 같은 십종병의 전승에 대하여 용성진종은 「총론선병장」을 시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독특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첫째, 간화선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데 있어서 잘못을 범하는 십종의 병통에 대해 그 근본을 知解로 보고, 그 지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십종병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십종병의 열 가지 낱말 명칭에 論字를 붙여 이해함으로써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남자가 열 가지 경우에 분별의식과 분별사상으로 논하려는 것이 곧 병통임을 진단하였다.

셋째, 십종병 가운데 ②와 ③의 명칭에 대하여 각각 論無心病과 論平常病으로 제시하여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명칭 및 해설에 있어서 기존의

십종병과 차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용성은 결론적으로 십종병 전체를 分別心과 義路에 떨어진 것으로 보아 무자화두의 참구는 일체의 분별심을 단절하고 모든 義路를 소멸한 곳에서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참고문헌

- 『法演禪師語錄』, 『大正新脩大藏經』 47  
『大慧普覺禪師語錄』, 『大正新脩大藏經』 47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普照全書』, 보조사상연구원, 1989.  
『看話決疑論』, 『普照全書』, 보조사상연구원, 1989.  
『狗子無佛性話揀病論』, 『韓國佛教全書』 6  
『太古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6  
『禪家龜鑑』, 『韓國佛教全書』 7  
『無字揀病論科解』, 『韓國佛教全書』 10  
『백용성대중사총서』 1, 「선사상」,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동국대출판부, 2016.  
김호귀, 『修禪結社文』, 백파사상연구소, 2012.  
신규택, 『禪文手鏡』, 동국대출판부, 2012.  
인경,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사상 연구』, 명상상담연구원, 2009.  
김영옥, 「看話十種病의 淵源」, 『범한철학』 42-3, 2006.  
최성렬, 「無字話頭와 普照知訥의 看話十種禪病」, 『석산 한중만 박사 화갑기념 한국사상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1.  
최성렬, 「看話十種禪病의 체계분석」, 『불교학보』 28.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1991.

## Abstract

A view about ten malfunctions in *Chongronseonbyungjang*(總論禪病章)  
by Yongsung-Jinjong(龍城震鍾)

Kim, Ho-gui

(Professor of Humanities Korea Project, Academy Buddhist Studies)

The core of discipline in Khanwha-seon depends on the method of meditating on one's whadu without a break and pause. When zen-practician misapprehend about the equipment and forget the basic principle of practice, the malfunctions arise.

The origin of indirect of Wuzihuatou(無字話頭) is Zhaozhou-Congshen(趙州從諗). But direct of Wuzihuatou from the seon master Wuzu-fayan(五祖法演). And the original form of malfunctions about Wuzihuatou suggested by Dahui-Jonggao(大慧宗杲). He had presented eight items of malfunctions of Wuzihuatou practice through his analects.

After that time, Bojo-Jinul(普照知訥) performed the ten malfunctions of Wuzihuatou practice through his work, that is, *Ganwhagyeoluiron*(看話決疑論). He mentioned the ten items about malfunctions for the first time. Thereafter, Jingak-Hyesim(眞覺慧諶) had plenty of notes about the ten malfunctions through his work, i.e. *Gujamubulsunghwaganbyeongron*(狗子無佛性話揀病論).

And, Cheongheo-Huejung(清虛休靜) accepted the views and the ten terms of Jingak-Hyesim in *Seongaguigan*(禪家龜鑑). In the meantime, Bakpa-geungsun(白坡巨璇) had note and divided into four parts or two parts in his work, i.e. *Mujaganbyeongrongwahae*(無字揀病論科解).

On the other had, Yongsung-Jinjong(龍城眞宗) had set forth his views of the ten malfunctions in *Chongronseonbyungjang*(總論禪病章). We can

understa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en malfunctions are three point.

First, Yongsung-Jinjong grasped the point about its origin of the ten malfunctions are knowledges and discriminations. Second, Yongsung-Jinjong made an additional comment, so called, argument(論) on the ten malfunction items each other. Third, Yongsung-Jinjong replaced the item ② not a thing(眞無) and the item ③ profound reason(玄妙道里) with absence of the worldly desires(無心) and normal conditions(平常) each other.

#### Key words

ten malfunctions, Chongronseonbyungjang, Wuzihuatou, Ganwhagyeoluiron, Gujamubulsunghwaganbyeongron, Seongaguigam, Mujaganbyeongrongwahae